

내가 만난

백범 김구 선생님

200 년 월 일 발행

학교

기사작성·편집

나의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그려 볼까요?
(현재 내가 맡고 있는 책임과 미래의 역할)

● 과거

● 현재

● 미래

오늘은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위해 커다란 나무가 되어준 백범 김구 선생님을 기억하는 신문을 만들어 봤습니다.

이 커다란 나무에 우리 민족이 이루고 결실을 맺어야 할 열매를 달아주세요.



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나라

우리 모국은 오늘



오늘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.



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
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

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때
함부로 건지 말지어다.
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
뒷사람의 길이 되리니...

- 도장
- 생각
- 자료사진



相好不如身好 身好不如心好

볼장 좋음호 못할뿐 같을며 몸신 좋음호 몸신 좋음호 못할뿐 같을며 마음심 좋음호

외적인 수양보다는 마음을 닦는 내적인 수양에 힘쓰기로 하고 마음 좋은 사람 즉 好心인이 되기로 결심하였다.

마음 좋은 사람

好心人

호심인

감옥생활 중에도 김구선생님은 수감자들에게 글과 애국심을 가르쳤으며 자신은 새로운 학문을 익혀 세계관을 넓히는데 힘을 썼습니다.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.

知 難 行 易 - 판단, 실행, 계속

알지 어려울난 행할뿐 쉬울이

백정(白丁)+범부(凡夫)

白凡

白凡逸志

백범일지

백범 김구 선생이 인과 신 두 아들과 민족에게 자신의 지난 일들을 알리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. 이 책은 보물 제1245호로 우리나라의 귀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.



나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가지만

김구 선생님 시계와 윤봉길 의사 시계



이 시계는...

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a response to the prompt '이 시계는...'

백범 김구 선생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다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.

A large white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 message or reflection.

효창원 애국 선열* 묘역

* 선열 :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은 사람



백범 김구 선생



안중근 의사



이봉창 의사



윤봉길 의사



백정기 의사



조성환 선생



이동녕 선생



차리석 선생